

서남대 설립자 불구속 기소 교비 3억8천만원 유용 혐의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2일 학교 교비를 개인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북 서남대 설립자 이모(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학교 설립과정에서 교비 3억8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용으로 유용한 혐의다.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호남지역에 서남대 등 4개 대학과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 중인 이씨는 1997년에도 등록금 42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다.

이씨는 이후 학교재단으로 복귀했으나 최근 감사원의 사학비리 감사에서 횡령사실이 적발돼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이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H건설이 내야 할 조세 35억원을 포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이 회사 전 대표 김모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횡령한 3억8천만원을 수사 과정에서 학교 측에 반납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초등 6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 담양 한 학교서 사전 유출

전국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문제 일부가 담양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18~20일 전남지역 14개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실시했는데, 담양 M초등학교 6학년 담임 S교사가 일부 과목 시험 문제를 사전에 학생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담임교사가 시험 전날 OMR카드와 수정액, 시험지 매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르치지 않은 교과 내용이 문제로 있어 학생들에게 문제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몇 과목에서 몇 문제를 가르쳐 줬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S교사는 "시험 전날 지난해 평가지를 참조해 예상문제를 뽑아 봤는데 우연히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전국 초등학교 중 3%를 대상으로 국어·영어·사회·수학·과학 등 5과목을 표집 평가해 시험을 실시, 그 결과를 교육과정의 난이도 검토 등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시험 결과는 학생들의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지역 다른 13개 초등학교에서는 시험문제 유출이 없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M초등학교의 시험 결과는 반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법 당선자 잡는 '저승사자' 있다

■ 광주지법 김재영 부장판사 '5·31' 6건 중 5건 당선무효형 선고 수사중 단체장 5~6명도 '좌불안석'

"선거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그에 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선거사법 전담 재판부인 5·31지방법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 형사 4부(부장판사 김재영·48)가 최근 선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사람들은 ▲광주시의회 서모 의원(벌금 500만원) ▲전남도의회 김모 의원(벌금 150만원) ▲서구의회 나모 의원(벌금 200만원) ▲서구의회 김모 의원(벌금 200만원) ▲남구의회 박모 의원(벌금 150만원) 등 5명. 이외 담양·장성·영광·나주 등 자치단체장 4명 등 5~6명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이들 중 일부는 또다시 김 부장의 판결에 당락이 엇갈릴 운명에 놓여있다.

선거사법 재판부를 이끌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광주출신으로, 광주일고(77

년)와 서울대(85년)를 졸업 후 지난 89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하지만 그는 선거법 위반 사법에 대해서는 '고향'이라는 점을 고려치 않고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거가 공정히 치러지도록 하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법이 엄정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쉽게 위반하는 후보자들이 많은 것은 아직도 많은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갖고 있다"면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당선된 사람들은 언제든 법의 심판을 받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의 의지는 판결문에서도 엿보인다. 김 부장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서구의회 나모 의장의 경우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선거일이 임박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이는 선거법을 무시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은 그러나 "법관마다 양형 기준이 틀리면 재판부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 법원 선거사법 재판부의 판결문 등을 많이 참고하고, 그 경향에 따라 판결도 이뤄지고 있다"며 "선거법에 대한 엄단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재난대비 소방훈련 2일 오후 2시 광주역에서 실시된 '2006 재난대비 종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가상의 화재가 발생한 광주역을 향해 물을 쓰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철도공사 광주지사, 북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북부경찰서, 육군 31사단, 공군, 북구청 등 24개 기관에서 250명이 참가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교과서 잃어버리면 이제 어디서 사나..."

■ 35년 역사 광주 '종합서적' 폐업 독서 즐기고·인터넷 서점 영향 '경영난'

광주의 대표적인 서점으로서, 35년의 역사를 지닌 '종합서적'(대표 조수용)이 계속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폐업했다.

광주시 동구 대의동 전남여고 맞은편에 위치한 '종합서적'은 지난 1971년 개점한 이후 책을 좋아하는 지역민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1970~80년대 이념서적이나 일반 교양 서적 판매 명소로 이름을 떨쳤다.

지난 1984년부터는 초·중·고교 2종(검정) 교과서를 개별 판매해 학기 중에 교과서를 잃어버리거나 다른 지역에 위치한 '종합서적'은 지난 1971년 개점한 이후 책을 좋아하는 지역민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의 경우 광주에서 종합서적 외에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고려문고'(대표 구운회)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수학·영어·사회 등 2종 교과서는 '종합서적'에서만 판매했다.

'종합서적' 대표 조씨는 지난 1990년 1층이었던 서점 건물을 허물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했다. 지하 60평에 어린이 서점, 지상 1·2·3층에 각 분야별 전문 서적 판매 코너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지역민들이 독서를 기피하고 책 사기를 꺼려하면

서 경영난에 봉착했다. 가격적인 할인율을 앞세운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면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손님까지 쏙 빼앗겼다. 교과서의 경우 초등의 경우 800~1500원, 중등은 3천~6천원에 불과한데도 마진율도 5%밖에 되지 않아 수익성이 없었다.

'종합서적' 폐업으로 광주지역 2종 교과서 판매점은 없어졌다. 학기 중 2종 교과서가 급히 필요한 학생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협회(www.ktbook.com)를 통해 구매 수밖에 없다.

한편 광주지역 서점은 지난 1980년대 중반까지야 해도 350여곳에 달했으나, 책 판매량 감소에 따른 경영난으로 현재 210여곳으로 줄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나원침 (6966) 김창두



발상 선도서적 종신특권
물러는 3.6% 최대단기
정당명: 민주노동당
수원선도시 파오리
전화: 062-367-9000

낙지 잡던 부부 사망·실종

2일 오전 10시20분께 목포시 충무동 늪도 북쪽 1km 해상에서 0.98t급 '주낙'(延繩) 어선 '유성호'를 타고 낙지를 잡던 장모(여·60·목포시 용담동)씨가 물에 빠져 숨지고 유모(64)씨는 실종됐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대학생 타 대학 돌며 노트북 훔쳐

○..대학생이 다른 대학교 도서관을 돌며 상습적으로 MP3·노트북 등을 훔쳐 팔았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H씨는 훔친 노트북 사진을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의 중고품 매매사이트에 게재했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FURTEX 푸렉스 에어컨

초대형 에어컨은 온풍만
친기러워워 동을 불려야지

최저가부터 최고급 에어컨까지
최적조절과 원거리 원격 난방까지

무등산업

LG JINJI

상설할인마트 확장이전

가을·겨울 상품 다량입하

MAESTRO, DAKS, ZUWIND, TNGT, 3D AUDIO, Infiniti, DAKS GOLF

상설할인마트 서양점
☎(062)511-0249